

힘이요, 능력이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 * 3/15(월) 사도행전 18-21장

베드로 (1-12장)		바울 (13-28장)
예루살렘 (1-7장)	유대와 사마리아 (8-12장)	땅 끝 (13-28장)
복음의 성장 승천, 오순절 성령, 선포와 표적, 일곱 집사 1-6장 스데반 순교, 펠릭과 박해, 선포와 표적 7-8장 1-4장 거룩한 영, 성령이신 5-7장 성전보다 크신	복음 확장의 초석 사울의 회개 9:1-31 베드로와 고넬료 9:32-11:18 안디옥 교회 11:19-30 베드로 투옥, 헤롯의 죽음 12장 8-10장 부활하신 11-13장 온 세상의 주님이신	복음의 확장 1차 여행, 예루살렘회의 13-15:35 2차 여행 15:36-18:22 3차 여행 18:23-21:16 펠릭, 잡힐, 상소, 로마행 21:17-28장 14-17장 새 언약이신 18-21장 힘이요 능력이신

Before 출치며 읽기

바울과 복음을 막는
각종 권세는 무엇입니까?

“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
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
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
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(18:9-10).”

After 묵상하기

성도로 살고자 할 때,
나(우리)를 막아서는
거대한 힘은 무엇입니까?

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.
안디옥과 데살로니카, 에베소에서 만났던 폭동들,
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고,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았으며,
베뢰아에서는 도망 나오고 고린도에서는 소송을 당합니다.
바울은 늘 예수의 흔적, 고난을 몸에 지녔습니다.
(갈6:17, 골1:24)

참고도서

백주년기념성서주석
모든 사람을 위한
사도행전(톰 라이트)
바울평전(톰 라이트)

예수를 위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지만,
하나님의 위로와 명확한 음성이 간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
심한 매질을 맞은 지 몇 주(혹 두 달)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.
세 도시에서 고초를 겪었으며, 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.
바울은 고린도의 때를 이렇게 기억하며 고백합니다.
“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
심히 떨었노라(고전2:3).”

하나님께서 짧은 말씀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.
세세한 설명이나 상세한 계획도 없었습니다.
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.
잘 하고 있다, 잘 가고 있다, 하나님께 확인해 주셨습니다!
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.

바울은 가는 곳마다 폭동을 만났습니다.
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곳마다
<보좌>를 놓고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.
거대한 <힘 power>들이 말씀과 거세게 부딪쳤습니다.

정치적 상황들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.
글라우디오 황제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바 있습니다.
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였습니다. 유대인은 제국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.
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<소란>에 자신들도 희생될까 조바심을 냈습니다.
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(19:9, 20:3, 21:27).
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눈과 귀를 꼭 닫았습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권력도 움직이셨습니다.
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갔을 때,
총독은 이 문제를 <너희 법> 즉, 유대인 내부의 일로 일축했습니다(18:15).
바울을 유대인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한 공식적 발언이었습니다.
바울은 끌려간 법정 앞에서 오히려 선교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.
유대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남부 선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,
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통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(21:31).

때로 종교적 상황들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.
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(19:11-12).
그런데 <시험 삼아>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.
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신들의 위엄을 지키려는 이교도의 소동도 있었습니다(19:27).
대외적인 이유일 뿐, 실상은 <만든 신>으로 벌어드리는 수의 때문이었습니다(19:24-25).
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바울을 오해하고 음해했습니다(21:20-21).

바울이 세상의 각종 권세들에 부딪칠 때마다,
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셨습니다.
각종 권세의(power) 집결지였던 에베소 한 가운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.
“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<강한 힘>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<능력>이
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,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(새번역, 앱1:19).”

힘이요, 능력이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
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

“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
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
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
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(행20:23-24)”